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특성과 가족사업 요구¹⁾

성신여자대학교 2020 하계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사회복지학과 20176208 김수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은 여성의 지위 상승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가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이전까지 주 수입원으로 여겨지던 남성의 경제활동만으로는 가계 운영을 어렵게 했다. 결국,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필연성을 부여하여 사회 전체에 맞벌이 가족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정 내 여성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은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중역할을 부담한다. 결국,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자녀의 주 양육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부재로 이어져 자녀의 돌봄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경미·계선자, 2018).

우리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어린이집 보육시간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충원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긴급보육 확대, 지역사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사회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 품앗이 사업에 맞벌이 가정 우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여러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많은 여성들이 자녀 돌봄 공백의 해결 방안으로 경력단절의 길을 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사태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어, 현재 정책들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돌봄 여건의 격차가 심화된다. 최근 육아휴직제도의 확산,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으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돌봄 공적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초등생 돌봄 인프라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형태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의 등교 전과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초등생 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김송이 외, 2018; 조희금·서지원, 2009; 김지경·김근희, 2013).

뿐만 아니라, 가정배경에 따라 돌봄 여건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중산층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사적으로 운영되는 대안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비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돌봄 공백의 문제가 더욱 심

1) 본 연구보고서는 성신여자대학교 2020 학부생하계연구프로그램의 결과보고서의 일부로서 본 원고의 저작권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아(gimsua66@gmail.com)에게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용해야 합니다.
김수아(2020).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특성과 가족사업 요구.성신여대 2020하계학부생연구프로그램 보고서.

각하다. 이들의 열악한 양육환경은 저소득층 맞벌이 취업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공적 인프라의 조성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임예지·이연숙, 2018).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공적 인프라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강북구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가 적다.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1 여성가족부, 2020) 더 나아가서, 심화 된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강북구의 저소득 가정의 비율은 서울시 전체 197,278가구의 5.625%에 해당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로 타 자치구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강북구도시통계연보, 2019;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2) 이는 강북구의 자녀돌봄을 위한 공공 인프라의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가 대상으로 두고 있는 강북구는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확대하고자, 2021년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를 확충하고자 한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시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내 분화된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 연구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확충의 방향성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돌봄공백 관련 이론

돌봄공백은 성인 보호자의 돌봄 없이 아동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임혜정, 2017) 2018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부터 만 17세 사이의 아동 중 평일 방과 후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아동 즉 돌봄 공백의 상황에 놓여진 아동은 10.3%이며, 저녁시간까지 혼자 보내는 아동은 4.5%를 차지했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동은 각각 5.3%, 8.8%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19)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아동들이 돌봄공백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돌봄공백으로 인하여 아동들은 강제적으로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돌봄공백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보호에 관해 연구한 논문들은 아동의 자기보호는 자립심 및 책임감 고취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보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 사회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선영, 2015) 아동의 자기보호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 아동의 범죄 상황 노출 및 결식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문제행동을 경험할 상황에 쉽게 놓여질 수 있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폭력, 흡연, 음주, 마약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아동의 경우, 성인 보호자의 관리 없이는 자발적인 학습활동이 어려워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김지경, 김근희, 2013).

아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개인으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보호자의 돌봄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환경으로 작용한다. 성인의 돌봄이 아동의 과업인 발달에 필수적인 이 시기에, 아동이 적절한 돌봄 없이 방치된다면,

이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돌봄공백을 야기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주역인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자녀 연령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돌봄공백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아동의 연령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경·김균희, 2013)

김지경, 김균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26.1% 만이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반면, 4학년의 경우는 44.7%가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초등생 저학년과 고학년 간 돌봄공백 경험 차이가 약 1.7배 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고학년이 돌봄공백에 취약한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김지경·김균희, 2013)

이는 즉 부모가 자녀를 성숙하다고 판단하거나 연령수준이 높다고 규정하는 시점부터 돌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randon 1999; Vandivere et al. 2003a; Casper & Smith 2004; Green et al. 2011; 김지경·김균희, 2013).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종일제, 반일제, 야간보육, 연장형 등 비교적 수요자인 부모의 욕구에 대응하여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김지경, 김균희. 2013).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초등 저학년은 초등 고학년에 비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 이용 가능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가 실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영유아·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영유아·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른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부모의 근무형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비 맞벌이 가정의 자녀보다 돌봄 공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지경·김균희, 2013)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의 주요 원인이 부모의 맞벌이임이 자명해졌다(임혜정, 2017).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돌봄 공백 상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는 여전히 현실에 존재하며, 많은 취업모들이 자녀의 돌봄공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경력중단의 길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나아가, 맞벌이 가정 내에서도 돌봄 공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을 밝혀야 한다.

Vandivere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고용상태가 전일제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Vandivere et al. 2003a :김지경·김균희, 2013). 그러나 부모의 고용상태와 자녀의 돌봄 공백 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맞벌이 부모의 근무특성 연구를 통해 아동의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4. 이용 중인 서비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1시간으로 평일 평균 취업시간은 8.22시간이다(통계청, 2019). 이에 우리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시간 규정, 시간연장보육,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우리 동네 키움 센터 등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류연규 외, 2019)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7시간 42분, 유치원 7시간 36분,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기관 6시간 12분으로 기관별로 상이하였다(이정원 외, 2019).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하루 8시간 운영 중이며, 초등 돌봄교실은 17:00까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2020;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센터 홈페이지) 이처럼 기관 유형에 따라 이용시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앞서 제시한 부모의 근로시간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과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간의 차이는 자녀의 돌봄 공백을 유발한다. 결국은 이용 중인 양육기관 유형은 부모의 돌봄 공백 시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다소 좁은 영역인 공적 돌봄 서비스만 다루고 있으며, 연구대상 또한 영유아로 한정적이다. 공적 돌봄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돌봄 공백실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적 돌봄 서비스의 유형과 돌봄 공백 시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5. 공적 자녀돌봄 서비스

1) 공적 자녀돌봄 서비스 현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 연장보육,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휴일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은 모든 어린이집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이 외의 보육 서비스는 연장형 보육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0)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촘촘하게 구성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아동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크게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 교육시간이 끝나고 나면 종일제(사립), 오후에듀케어(공립)이 운영된다. 그 이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에듀케어와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0.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방과후학교 사업의 일환을 시작되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 따라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0년 돌봄교실 700실 확충으로 30만 4천명에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9년 4월 말 기준, 6117개의 초등학교에서 29만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 2020- 1.9 보도자료)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각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 아동의 돌봄을 담당해왔다. 이후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다. 과거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데 비해, 2019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을 개선하여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대상은 일반아동 중 돌봄이 취약하다고 인정된 아동을 포함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0-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서울시 주관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돌

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만 6세~ 12세 즉, 초등학생에 상시 돌봄 (중일 및 시간제), 일시 돌봄, 긴급돌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서울시 우리아이키움센터 홈페이지).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통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각 자치구 건강가족지원센터 주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이전까지의 수직적이고 선별적인 가족복지 사업에서 기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주민 자치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부모의 돌봄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에서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현대사회에 결핍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2) 공동육아나눔터 의의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사회적 돌봄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현재까지의 돌봄의 공적 서비스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운영체제로 인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아동에 제공되기 어려웠다. 그에 비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주민의 자치성을 강조하며 주민 자치적이고 유연한 돌봄 환경 조성을 주 목적으로 두고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지역사회에 유연한 돌봄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돌봄 공백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요인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강북구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공백, 자녀돌봄 정책 요구, 자녀돌봄 서비스 인프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주 양육자의 근무 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에 따라 돌봄공백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 <연구문제 3>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돌봄공백 시간에 따라 돌봄 정책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표본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시 강북구 거주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가정을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설문지를 통해 거주지역과 자녀유무를 확

인 후 본 연구의 자격조건에 부합한 응답자들에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표본은 강북구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센터, 커뮤니티 이용자 중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편의표본추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서베이 몽키 (suvey monkey)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8월 7일부터 2020년 8월 23일까지 17일간 진행되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돌봄 공백 시간이다. 돌봄공백 시간은 부모의 근로 시간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돌봄공백 시간은 ‘귀하 자녀의 돌봄공백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로 추출되었다. 이 문항에 의해서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으로 측정되었다. 돌봄 공백 시간은 1시간 미만(=1),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2), 3시간 이상(=3)으로 더미화 하였다.

돌봄공백시간은 연구문제 2에서는 종속변수로 이용되었지만, 연구문제 3에서는 독립변수로 이용된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차이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강북구 지역 내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은 무엇입니까?’,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강북구 맞벌이 가정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돌봄을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 측정되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녀의 연령, 주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의 종류, 주 양육자의 성별이다.

첫째, 주 이용 돌봄 서비스의 유형은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귀하가 이용한 자녀 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들입니까?’ 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귀하가 이용한 자녀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들입니까?’ 로 측정되었다. 이는 각각 공적 서비스 이용, 사적 서비스 이용, 혼합 서비스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공적 서비스는 국가의 재원이 투입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사적 서비스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대안적 돌봄 서비스 및 가족 돌봄 등을 의미한다. 혼합 돌봄은 공적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혼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자녀의 연령은 ‘귀하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에 의해서 ‘만 1세 (12개월) 미만’, ‘만 1세 이상 ~ 만 3세(36개월) 미만’, ‘만 3세 이상 ~ 만 5세 (60개월) 미만’, ‘만 5세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중학생 이상’ 으로 측정되었다. 자녀연령은 만 3세(36개월) 미만 (=1), 만 3세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전(=2),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3)으로 더미화 하였다.

셋째, 부모의 근무형태는 ‘귀하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배우자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된다. 응답자의 성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부모의 근무형태를 추출하였다.

<표 1> 변수

변수		변수 정의		
독립변수	부모의 근무특성	1. 전일제 2. 시간제 3. 기타		
	자녀의 연령	1. 만 3세 미만 2. 만 3세 이상 ~ 초등 입학 전 3. 초등 저학년		
	이용 돌봄 서비스	1. 공적 서비스 이용 2. 사적 서비스 이용 3. 혼합이용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의향	1. 이용할 것이다 2.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종속변수	정책 욕구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0. 선택 안함 1. 선택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0. 선택 안함 1. 선택	
		지역아동센터 확충	0. 선택 안함 1. 선택	
		24시간 보육기관 확충	0. 선택 안함 1. 선택	
		필요 정책 및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0. 선택 안함 1. 선택
			가족돌봄휴가 지원	0. 선택 안함 1. 선택
		정책 욕구	유연근문제 확대	0. 선택 안함 1. 선택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0. 선택 안함 1. 선택
			각종 수당 지급액 확대	0. 선택 안함 1. 선택
			기타	0. 선택 안함 1. 선택
		강북구 공적 인프라 구축 중요 요소	1. 양적인 확대 (시설 수 증가) 2.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공동체 육아 지원 4. 홍보 5. 현재 만족함 6. 기타	
		돌봄공백 시간*	1. 1시간 미만 2.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 3시간 이상	

* 돌봄공백시간은 연구문제 2에서는 종속변수로 이용되었지만, 연구문제 3에서는 독립변수로 이용된다.

2)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구표본 160명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맞벌이 가정이며, 초등생 저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들이다. 연구표본의 90.63%는 여성이고, 9.38%는 남성이다. 이들의 나이는 20대가 2명으로 1.25%, 30대가 69명으로 43.13%, 40대가 86명으로 53.75%, 50대가 3명으로 1.88%를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은 우이동이 11명으로 6.88%, 인수동·수유1동·수유2동·수유동이 59명으로 38.88%, 송천동·송중동·미아동이 36명으로 22.50%, 번1동·번2동·번3동이 20명으로 12.50%, 삼각산동·삼양동이 34명으로 21.25%이다.

이들의 자녀 수는 1명이 40%, 2명이 52.50%, 3명이 6.25%, 4명 이상이 1.25%이며 평균 자녀 수는 1.6875명이다. 근무형태는 여성의 경우, 전일제 58.8%, 시간제 36.6%, 기타 4.8%이고, 남성의 경우, 전일제 93.3%, 시간제 0.0%, 기타 6.7%이다.

<표 2> 연구 표본의 특성

변수		값	
성별	여성	145 (90.63)	
	남성	15 (9.38)	
	계	160 (100.0)	
거주 지역	우이동	11 (6.88)	
	인수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59 (36.88)	
	송천동, 송중동, 미아동	36 (22.50)	
	번1동, 번2동, 번3동	20 (12.50)	
	삼각산동, 삼양동	34 (21.25)	
	계	160 (100.0)	
나이	20대	2 (1.25)	
	30대	69 (43.13)	
	40대	86 (53.75)	
	50대 이상	3 (1.88)	
	계	160 (100.0)	
자녀 수	1명	64 (40.00)	
	2명	84 (52.50)	
	3명	10 (6.25)	
	4명 이상	2 (1.25)	
	계	160 (100.0)	
근무형태	여성	전일제	85 (58.6)
		시간제	53 (36.6)
		기타	7 (4.8)
		계	145 (100.0)
	남성	전일제	14 (93.3)
		시간제	0 (0.0)
		기타	1 (6.7)
		계	15 (100.0)

4. 분석방법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에 따른 돌봄공백 시간의 차이 및 주 양

육자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돌봄 공백시간에 따른 양육 정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카이제곱 테스트로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강북구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공백 시간, 자녀돌봄 정책적 요구, 자녀돌봄 서비스 인프라

1) 강북구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공백 시간

<표 3> 강북구 맞벌이가정 돌봄공백시간

(단위: 명, (퍼센트 (%))	
돌봄공백 시간	빈도 (%)
1시간 미만	31 (19.4)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3 (20.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2 (26.3)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2 (13.8)
4시간 이상	32 (20.0)
합계	160 (100.0)

강북구 맞벌이 가정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공백시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북구 돌봄 공백시간의 양상은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강북구 맞벌이 가정 이 경험하는 돌봄 공백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강북구 맞벌이 가정 이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시간 이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60.1%로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는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 돌봄 정책적 요구

<표 4>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명, (퍼센트 (%))	
	빈도(%)
이용할 것이다	126 (78.8)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36 (21.3)
전체	160 (100.0)

<표 4>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78.8%의 응답자가 공동육아나눔터의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용시간 등 제약이 존재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가 맞벌이 가정을 주 대

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 강북구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공적인프라 구축의 중요 요소

		(단위: 명, (퍼센트 (%))	
		빈도(%)	
	양적인 확대 (돌봄시설 수 증가)	47	(29.4)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75	(46.9)
	공동체 육아지원	17	(10.6)
유효	홍보	13	(8.1)
	현재만족함	5	(3.1)
	기타	3	(1.9)
	전체	160	(100.0)

강북구 맞벌이 가정이 생각하는 돌봄 공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요소는 <표 5>과 같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본질은 만족하는 반면,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시설 수 증가와 같은 양적인 확대도 29.4%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표 7>, <표 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강북구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6> 강북구 자녀돌봄 어려움 해소 위해 시급한 정책 및 사업

		(단위: 명, (퍼센트 (%))	
		빈도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아이돌보미)	선택하지 않음	122	(76.3)
	선택함	38	(23.8)
지역아동센터 확충	선택하지 않음	138	(86.3)
	선택함	22	(13.8)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선택하지 않음	110	(68.8)
	선택함	50	(31.3)
24시간 보육기관 확충	선택하지 않음	139	(86.9)
	선택함	21	(13.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선택하지 않음	140	(87.5)
	선택함	20	(12.5)
가족돌봄 휴가지원	선택하지 않음	111	(69.4)
	선택함	49	(30.6)
유연근무제 확대	선택하지 않음	113	(70.6)

	선택함	47 (29.4)
각종 수당 지급액 확대	선택하지 않음	134 (83.8)
	선택함	26 (16.3)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선택하지 않음	116 (72.5)
	선택함	44 (27.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긴급돌봄·보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로 가장 높고, 가족 돌봄 휴가 지원 (30.6%), 유연근무제 확대 (29.4%)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업무로 인하여 급하게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사적 서비스 혹은 다른 가족의 돌봄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긴급돌봄·보육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 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확대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긴급상황 이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설 돌봄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3) 강북구 자녀 돌봄 서비스 인프라

<표 7> 강북구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단위: 개)

강북구 서비스 제공기관	갯수
우리동네 키움센터	0
지역아동센터	21
초등돌봄교실	13
열린 육아방	1
공동육아나눔터	1
어린이집	166
유치원	18

<표 8> 서울시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단위: 명, (퍼센트 (%))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갯수	평균
우리동네 키움센터	86	3.44
지역아동센터	438	17.52
초등돌봄교실	601	24.04
열린 육아방	44	1.76
공동육아나눔터	28	1.12
어린이집	5625	225
유치원	795	31.8

<표 7>은 서울시 우리아이키움포털 홈페이지 및 강북·성북 교육지원청에 게시된 강북구의 공적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이고(서울시 우리아이키움포털 홈페이지; 강북·성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표 8>은 서울시 우리아이키움포털 홈페이지 및 서울시 교육청 2020년 상반기 서울교육통계에 발표된 공적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수와 자치구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이다(서울시 우리아이키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교육청). <표 7>와 <표 8>를 비교해보았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강북구 공적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든 유형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적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기

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강북구는 유네스코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강북구가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녀 돌봄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에 따른 돌봄 공백 시간의 차이

<표 9>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자녀의 연령·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에 따른 돌봄 공백 시간의 차이

		돌봄공백 시간				χ^2 (df)		
		전체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부모의 근무특성	모	전일제	94 (58.8)	12 (38.7)	48 (64.0)	34 (63.0)	18.442***	
		시간제	58 (36.3)	13 (41.9)	26 (34.7)	19 (35.2)		
		기타	8 (5.0)	6 (19.4)	1 (1.3)	1 (1.9)		
	전체	160 (100.0)	31 (100.0)	75 (100.0)	54 (100.0)			
	부	전일제	149 (93.1)	28 (90.3)	68 (90.7)	53 (98.1)		4.233
		시간제	6 (3.8)	1 (3.2)	4 (5.3)	1 (1.9)		
기타		5 (3.1)	2 (6.5)	3 (4.0)	0 (0.0)			
전체	160 (100.0)	31 (100.0)	75 (100.0)	54 (100.0)				
자녀의 연령	만 3세 미만	28(17.5)	7 (22.6)	11 (14.7)	10 (18.5)	1.261		
	만 3세 이상 ~ 초등 입학 전	73(45.6)	14 (45.2)	34 (34.2)	25 (24.6)			
	초등 저학년	59(36.9)	10 (32.3)	30 (40.0)	19 (35.2)			
	전체	160 (100.0)	31 (100.0)	75 (100.0)	54 (100.0)			
이용 돌봄 서비스	공적 서비스 이용	50 (31.3)	13 (41.9)	20 (26.7)	17 (31.5)	7.441		
	사적 서비스 이용	26 (16.3)	6 (19.4)	8 (10.7)	12 (22.2)			
	혼합이용	84 (52.5)	12 (38.7)	47 (62.7)	25 (46.3)			
	전체	160 (100.0)	31 (100.0)	75 (100.0)	54 (100.0)			

돌봄 공백 시간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의 근무형태만이 돌봄 공백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근무형태가 전일제일 경우, 돌봄 공백 시간이 길어진다. 이는 근무형태가 전일제인 경우, 모의 근로시간이 높아져 돌봄 공백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돌봄 공백 시간이 전일제, 시간제에 비해 다소 짧게 나타났는데 기타의 응답은 유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반면에 부의 근무형태는 아동의 돌봄 공백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업모는 여전히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젠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돌봄 공백 시간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차이

<표 10>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자녀의 연령·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돌봄 공백 시간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 관계

(단위: 명, (퍼센트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의향			χ^2 (df)	
		계	이용 의향 있음	이용 의향 없음		
부모의 근무특성	모	전일제	94 (58.8)	75 (59.5)	19 (55.9)	1.334
		시간제	58 (36.3)	46 (36.5)	12 (35.3)	
		기타	8 (5.0)	5 (4.0)	3 (8.8)	
		전체	160 (100.0)	126 (100.0)	34 (100.0)	
자녀의 연령	부	전일제	149 (93.1)	117 (92.9)	32 (94.1)	1.877
		시간제	6 (3.8)	4 (3.2)	2 (5.9)	
		기타	5 (3.1)	5 (4.0)	0 (0.0)	
		전체	160 (100.0)	126 (100.0)	34 (100.0)	
이용 돌봄 서비스	만 3세 미만 만 3세 이상 ~ 초등 입학전 초등 저학년 전체	만 3세 미만	28 (17.5)	21 (16.7)	7 (20.6)	1.069
		만 3세 이상 ~	73 (73.0)	56 (44.4)	17 (50.0)	
		초등 입학전	59 (36.9)	49 (38.9)	10 (29.4)	
		초등 저학년	59 (36.9)	49 (38.9)	10 (29.4)	
돌봄공백 시간	전체	공적 서비스 이용	50 (31.3)	35 (27.8)	15 (44.1)	9.447**
		사적 서비스 이용	26 (16.3)	17 (13.5)	9 (26.5)	
		혼합이용	84 (52.5)	74 (58.7)	10 (29.4)	
		전체	160 (100.0)	126 (100.0)	34 (100.0)	
이용 돌봄 서비스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체	1시간 미만	31 (19.4)	22 (17.5)	9 (26.5)	1.446
		1시간 이상	75 (46.9)	61 (48.4)	14 (41.2)	
		3시간 미만	54 (33.8)	43 (34.1)	11 (32.4)	
		3시간 이상	54 (33.8)	43 (34.1)	11 (32.4)	
전체	160 (100.0)	126 (100.0)	34 (100.0)			

현재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의 유형과 공동육아나눔터의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 이용 의향 간 관계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을 보면, 현재 혼합 서비스 이용자 즉, 공적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혼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한 서비스만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혼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 가지 유형의 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또 다른 대안책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1>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자녀의 연령·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돌봄 공백 시간에 따른 강북구 영유아·초등 저학년 돌봄 공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 요소 간 차이

		(단위: 명, (퍼센트 (%))							χ^2 (df)	
		계	양적 인확 대	질적 향상	공동 육아 지원	홍보	현재 만족	기타		
부모의 근무특성	모	전일제	94 (58.8)	23 (48.9)	49 (65.3)	7 (41.2)	10 (76.9)	4 (80.0)	1 (33.3)	23.933**
		시간제	58 (36.3)	22 (46.8)	23 (30.7)	10 (58.8)	0 (0.0)	1 (20.0)	2 (66.7)	
		기타	8	2	3	0	3	0	0	

		(5.0)	(4.3)	(4.0)	(0.0)	(23.1)	(0.0)	(0.0)	
	전체	160	47	75	17	13	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	전일제	149	45	71	15	11	5	2	
		(93.1)	(95.7)	(94.7)	(88.2)	(84.6)	(100.0)	(66.7)	
	시간제	6	0	3	2	0	0	1	
		(3.8)	(0.0)	(4.0)	(11.8)	(0.0)	(0.0)	(33.3)	
	기타	5	2	1	0	2	0	0	20.809**
		(3.1)	(4.3)	(1.3)	(0.0)	(15.4)	(0.0)	(0.0)	
	전체	160	47	75	17	13	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의 연령	만 3세 미만	28	5	16	4	2	1	0	
		(17.5)	(10.6)	(21.3)	(23.5)	(15.4)	(20.0)	(0.0)	
	만 3세 이상 ~ 초등 입학전	73	26	29	7	7	3	1	
		(45.6)	(55.3)	(38.7)	(41.2)	(53.8)	(60.0)	(33.3)	6.732
	초등 저학년	59	16	30	6	4	1	2	
	(36.9)	(34.0)	(40.0)	(35.3)	(30.8)	(20.0)	(66.7)		
	전체	160	47	75	17	13	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용 돌봄 서비스	공적 서비스 이용	50	14	23	4	4	3	2	
		(31.3)	(29.8)	(30.7)	(23.5)	(30.8)	(60.0)	(66.7)	
	사적 서비스 이용	26	7	13	1	4	1	0	
		(16.3)	(14.9)	(17.3)	(5.9)	(30.8)	(20.0)	(0.0)	9.179
	혼합이용	84	26	39	12	5	1	1	
		(52.0)	(55.3)	(52.0)	(70.6)	(38.5)	(20.0)	(33.3)	
	전체	160	47	75	17	13	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돌봄공백 시간	1시간 미만	31	9	16	1	4	0	1	
		(19.4)	(19.1)	(21.3)	(5.9)	(30.8)	(0.0)	(33.3)	
	1시간 이상	75	15	35	13	7	4	1	
		(46.9)	(31.9)	(46.7)	(76.5)	(53.8)	(80.0)	(33.3)	16.898
	3시간 미만	54	23	24	3	2	1	1	
	(33.8)	(48.9)	(32.0)	(17.6)	(15.4)	(20.0)	(33.3)		
	3시간 이상	160	47	75	17	13	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1>은 부모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 돌봄공백 시간에 따른 강복구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공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중 부모의 근무상태가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모의 근무형태가 전일제인 경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부의 근무형태는 전일제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경우에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제일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의 근무형태가 다소 경직되어있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기보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2>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자녀의 연령·이용하는 돌봄 서비스·돌봄 공백 시간에 따른 각종 수당 확대 간 차이

(단위: 명, 퍼센트 (%))

		각종 수당 확대			χ^2 (df)	
		계	선택 안함	선택		
부모의 근무특성	모	전일제	94 (58.8)	79 (59.0)	15 (57.7)	2.918
		시간제	58 (36.3)	50 (37.3)	8 (30.8)	
		기타	8 (5.0)	5 (3.7)	3 (11.5)	
		전체	160 (100.0)	134 (100.0)	26 (100.0)	
	부	전일제	149 (93.1)	127 (94.8)	22 (84.6)	3.600
		시간제	6 (3.8)	4 (3.0)	2 (7.7)	
		기타	5 (3.1)	3 (2.2)	2 (7.7)	
		전체	160 (100.0)	134 (100.0)	26 (100.0)	
자녀의 연령	만 3세 미만	28 (17.3)	19 (14.2)	9 (34.6)	2.600	
	만 3세 이상 ~	73 (45.6)	66 (49.3)	7 (26.9)		
	초등 입학전	59 (36.9)	49 (36.6)	10 (38.5)		
	초등 저학년	160 (100.0)	134 (100.0)	26 (100.0)		
	전체	160 (100.0)	134 (100.0)	26 (100.0)		
이용 돌봄 서비스	공적 서비스 이용	50 (31.3)	43 (32.1)	7 (26.9)	7.598**	
	사적 서비스 이용	26 (16.3)	19 (14.2)	7 (26.9)		
	혼합이용	84 (52.5)	72 (53.7)	12 (46.2)		
	전체	160 (100.0)	134 (100.0)	26 (100.0)		
돌봄공백 시간	1시간 미만	31 (19.4)	26 (19.4)	5 (19.2)	0.343	
	1시간 이상	75 (46.9)	64 (47.8)	11 (42.3)		
	3시간 미만	54 (33.8)	44 (32.8)	10 (38.5)		
	3시간 이상	160 (100.0)	134 (100.0)	26 (100.0)		
	전체	160 (100.0)	134 (100.0)	26 (100.0)		

<표 12>는 모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 돌봄 공백 시간과 강북구 지역 내 자녀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 중 각종 수당 지급액 확대 간 관계의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이 중 이용 돌봄 서비스의 유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적 서비스 혹은 사적 서비스 중 하나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당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적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한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 보다 수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한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다 크기 때문에, 각종 수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3> 주 양육자의 근무특성·자녀의 연령·이용하는 돌봄 서비스·돌봄 공백 시간에 따른 아이돌보미 확대 간 차이

		아이돌보미 확대			χ^2 (df)	
		계	선택 안함	선택		
부모의 근무특성	모	전일제	94 (58.8)	70 (74.5)	24 (25.5)	0.781
		시간제	58 (36.3)	45 (77.6)	13 (22.4)	
		기타	8	7	1	

(단위: 명, (퍼센트 (%))

		(5.0)	(87.5)	(1.9)	
	전체	160	122	38	
		(100.0)	(100.0)	(100.0)	
	전일제	149	112	37	
		(93.1)	(91.8)	(97.4)	
	시간제	6	5	1	
		(3.8)	(4.1)	(2.6)	
부	기타	5	5	0	1.820
		(3.1)	(4.1)	(0.0)	
	전체	160	122	38	
		(100.0)	(100.0)	(100.0)	
	만 3세 미만	28	21	7	
		(17.5)	(17.2)	(18.4)	
	만 3세 이상 ~	73	52	21	
	초등 입학전	(45.6)	(42.6)	(55.3)	
자녀의 연령	초등 저학년	59	49	10	2.546
		(36.9)	(40.2)	(26.3)	
	전체	160	122	38	
		(100.0)	(100.0)	(100.0)	
	공적 서비스 이용	50	34	16	
		(31.3)	(27.9)	(42.1)	
	사적 서비스 이용	26	26	0	
		(16.3)	(21.3)	(0.0)	
이용 돌봄 서비스	혼합이용	84	62	22	10.254**
		(52.5)	(50.8)	(57.9)	
	전체	160	122	38	
		(100.0)	(100.0)	(100.0)	
	1시간 미만	31	26	5	
		(19.4)	(21.3)	(13.2)	
	1시간 이상	75	57	18	
		(46.9)	(46.7)	(47.4)	
돌봄공백 시간	3시간 미만	54	39	15	1.481
		(33.8)	(32.0)	(39.5)	
	3시간 이상	160	122	38	
		(100.0)	(100.0)	(100.0)	

<표 13>은 모의 근무특성, 자녀의 연령,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 돌봄 공백 시간과 강북구 지역 내 자녀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 중 아이 돌봄 지원사업 확대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우 아이 돌봄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이지만,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이 돌봄 지원사업 확대를 선택한 비율이 0%이다. 즉, 이는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사적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V.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강북구 초등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강북구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 돌봄 공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부모의 맞벌이가 돌봄 공백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강북구 맞벌이 가정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공백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강북구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이 경험하는 돌봄 공백 시간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다수 가정이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하루 2시간 이상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0.1%로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에 강북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강북구 가정이 돌봄 공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요소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응답한 경우가 46.9%이며, 시설 수 증가 등 양적인 확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29.4%이다. 현재 강북구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수는 서울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25개 자치구의 평균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강북구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모의 근무형태로 밝혀졌다.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임에도, 부의 근무형태는 돌봄 공백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모가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양육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은 여성에 다중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이 자녀 양육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전에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고정관념 타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 가정 돌봄 특화 서비스 방향성 제언

첫째, 강북구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가족의 78.8%가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맞벌이 가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공적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혼합 이용하는 응답자가 공동육아나눔터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가 맞벌이 가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과 사적 돌봄서비스 이용 사이 공백시간을 대응할 수 있어, 강북구 맞벌이 가정에 보다 더 효용성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모의 근무 형태가 자녀의 돌봄공백시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동육아나눔터의 맞벌이 가정 특화 서비스 개발 시, 모의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과 서비스 제공방법을 결정한다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REFERENCE

- 조희금·서지원(2009).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61-81.
- 임예지·이연숙 (2018)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공유공간과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3), 3-13.
- 김송이·이혜수·임밖네(2018).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 돌봄 지원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정선영. (2015). 방과후 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0, 165-173.
- 임혜정. (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 여성가족부 발간자료
- 김지경, 김균희. (2013).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1-15.
- 류연규, 김송이, 김민정. (2019). 일상적 영유아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서울시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53-92.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가족사업안내(II).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42
- 강북구. (2019). 2019년 제24회 강북통계연보.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9458092>
- 서울시 우리아이키움센터 홈페이지.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
- 서울특별시 강북성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bgbedu.sen.go.kr/>
- 통계청. (2019).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서울교육통계_연도별학교현황. 2020년도상반기학교현황.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65>

하문선. (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9(3), 573-600.

김경미, 계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03-119.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0). 2020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7779&ctgCd=740>

보건복지부. (2020). 보육정책안내-각종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생활

보건복지부.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 2020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이정원 외 (2019).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교육부. (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보도자료